福音新聞
THE POK EUM SHIN MUN

發行所
福音新聞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神田(25)2623番
編集兼發行人 吳九台
主筆 田榮澤

聖句

오직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 감같을 것이요…피곤치아니하리로다 이사야40:31

希望의 새해를 맞이하여

希望의아침

國立國會圖書館 支部上野圖書館 昭和29.1.8 寄贈

苦難과 試鍊의 해 一九五三年은 지나가고 希望의 새해가 왔다。 겨레의 未來도 國家의 興亡도 모두 未知의 明日에 달렸거니와 未知의 一九五四年 첫 날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各界에서 그 懷포와 所感을 말하였다

一致協力하여 大業完遂

駐日公使 金溶植

甲午新正을 맞이하여 親愛하는 在日 各界同胞들과 더불어 慶賀하여 마지아니 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난一年間을 回顧하여 본때 가장 國家民族의 重大한 단계에 處하였던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民族의 鐵石같은 決心과 果敢한 精神은 어떠한 難局이라도 此를 극복하고 우리의 강토를 우리의 힘으로 確保하여 國際社會에 있어서도 우리의 地位를 한層더 높임으로써 韓民族의 偉大함을 世界萬邦에 보여주게 되었음은 民族의 將來를 爲하여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는 바입니다

日本에있는 우리 僑胞社會에 있어서도 과거에 볼수없던 緊密한 연락과 有機的關連을 本國과 가지게된것은 오로지 在日僑胞들이가 不斷히 本國을 위하여 獻身的으로 努力한 誠意가 本國까지 反映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希望의 甲午新正을 맞이하와 우리는 무한 모든 難關를 해결하고 더한層 一致協力하여 所期의 目的 達成이 있을것으로 確信하오니 여러분 同志들도 一層 굳은 각오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는 本國을 떠나 外地에 寄留하고있는 立場으로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政府를 신뢰하고 政策에 順應할것이며 各自 生業에 充實하여 責務完遂에 있어서 冷靜하여야 할것이며 특히 靑少年의 敎育問題등에도 우리의 힘으로 此를 解決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一部分子라도 高名 沒理解한 輕擧忘動을 하게되면 國家威信을 오損케하며 民衆全體의 利益에 배아되는 바 큰것이오니 특히 新正을 계기로 우리는 이러한 點에도 더욱 새로운

勝敗와 正

人間社會에는 [illegible]가지 競爭과 勝敗가있는데 그中에는 취미、오락本位의 運動競技、主義주장과 名譽本位의 政治鬪爭 서로 兩立되지못한 생명을 다투는 決鬪等과같이 勝負가 確然히 眼前에 보는것도 있고 그때그때 눈앞에 보이지는 않아도 人類가 無

社說

新年의 曙光

시간은 역사를 짓는 위대한 세력을 가졌다 지긋지긋한 전난으로 더브러 지리하게 끌어가던 휴전회담도 한국의 거족적 반대를 무시했다치더라도 마침내 끝이 나고、따라서 동포상잔과 민족출혈의 전쟁도 작년동안에 우선 끝막았다。 「가장 잘못된 평화도 가장 필요한 전쟁보다、차라리 낫다」고 한것은 과연 의인 아부라함·린컨의 명언이다 만일에 지난 해에도 그냥 전쟁이 계속되고 새해에까지 끌어가게 되었더라면 조국의 정경은 얼마나 더 처참하고 三千里산하는 얼마나 더 피의 세례와 따피의 화를 당하였으랴 결국 휴전은 정의와 사랑의 신의 경륜이었다고 볼수있다 그래서 지난 가을에 환도를 하게된 고국 수도 서울에서는 비록 표면적이나마 평화중에 성탄을 지내고 새해를 마지하게 되였으니 차소위 불행중 다행히 아닐수 없다。

따라서 외지에 있는 교포들도 한일회담의 결렬로 비록 격정은 되면서도 조국의 정전에 따라 파이 송구한 생각이 없이 새해를 마지하게 된것도 또한 고마운 일이다。

이제 예비회담의 결렬과 정치회담의 장래는 우리 앞에 막힌 커다란 암초요 한일회담의 결렬에 따르는 양국관계의 위험성은 일본교포의 머리위에 떠도는 험악한 구름이다 그리하여 조국의 동포 특히 백오십만 서울 시민은 아직도 불안과 수심의 구름에 싸여있고 우리 일본 교포도 한일회담의 결렬과 일본민중의 감정의 악화에 따르는 불안과 근심이 있으므로 나라와 안과 밖에 참 평화와 활기가 없이 지내는것은 유감이라고 아니할수없다

그러나 실망할 까닭은 없다 악마의 세력은 비록 강대한바가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도가 있는것이니 이제 때가 오면 정의의、승리가 실현될것이다 세계에 불의와 악이 마음것 발동하고 대중은 고통에 시달리고 근심중에 잠들어있는 동안에도 한편으로 우주적 정의와 사랑의 거대한 힘을 내포한 즐기찬 움직임이、혹은 적은 속사김과 기도의 소리로 혹은 힘찬 웨침으로 나날이 동하고 일보일보 전진하고 있는 증거와 사실을 많이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저 [illegible]의 장막뒤에있는 사람들도 一 감정이나 장막을 걷어버리고 서로 통할수있고 변해질수 [illegible]도록 하실수있는것을 우리는 믿는다。

결국은 시간문제[illegible]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illegible] 정의 시대、승리의 날이 [illegible]고야 말것을 믿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자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의 신념과 신앙에 좀더 충실하자 그리고 조국의 재건과 통일에 좀더 충성을 나 하기로 다같이 맹약하자。

각오로서 명랑한 在日僑胞社會로 躍進하도록 希求하는 바이며 이로써 國家將來에 隆運과 幸福을 享有하도록 努力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一九五四年 新年을 맞아 福音新聞이 우리民族、社會의 淨化運動에 큰 光明이 되어주기를 祝願하는 바이다。

(筆者는 前駐日公使)

新年을 맞이하는 韓國

제임스·이·휘시어博士

새로 마지하는 이新年이 過去 우리가 三年半이나 受難의 歲月을 보내오든 지나간 過去의 되푸리가 될것인지? 저무러가는 一九五三年에 우리들은 懷疑하지 않을수없다 板門店予備會談 國際聯合 서울 와신톤 모스코 北京 우리韓國에 關聯되고있는 이들 모든 곳을 살피어 볼때 우리들은 다가오는 新年에 대하여 希望을 가질 根據가 그리 없다는것을 告白할뿐이다 共產主義者들은 너무나 確實히 그들이 단지 계속적으로 冷戰이란 범위에서만 모든것을 생각하고 있다는것을 이미 表明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그들이 侵略의 術策을 最大限으로 利用하고 있다는것이다。

絕對多數의 國聯代表들은 가진 手段을 써가면서 戰爭을 短縮하며 同時에 戰爭을 防止하기에 努力하고 있는것이다 民主主義陣營의 諸國들은 戰爭을 希望하지 않을뿐 아니라 戰爭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지 鬪爭을 하고 있는것이다 오늘날 世界를 戰爭으로부터 防止할수있는 唯一한 일은 共產主義諸國들은 그들의 實力을 알게되며 따라서 攻擊할수가 없게 될것이다。

一九五四年 새해를 마지하면서 韓國에 關하여 우리가 힘있게 말할수있는것은 다름 아니라 過去三年半이나 계속한 피묻은 戰爭은 다시 再發되지 않을것이라는 말이다 共產主義者들은 만일 그들이 또 다시 戰爭을 再發하게 된다면 巨力의 戰力에 부닥치게 될것이며 原子武器까지도 使用하게 될것을 알고있다 그들은 또한 美國과 및 國聯合軍의 忍耐는 이以上 참을수 없게될것이며 또한 그들은 戰爭을 그만두고 滿足한 結論을 맺을것을 주저하지 않게될것이며 이렇게되면 그들은 可能한 方法으로써 명예스럽고 公正한 協定과 韓國의 完全統一에 努力할것을 共產主義者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것이다 그러나 疑心할바없이 共產主義者들은 完全히 非協力的이며 그리고 그들이 韓國의 完全統一에 同意치않을것은 뻔한 事實이다 韓國國軍은 强力하게되며 만일 또 다시 共產主義者들이 侵略을 도모할때에도 絕對로 양보치않을것이며 優勢한 軍力으로 막아내여야 할것이며 압록江밖으로 미러내여야만 할것이다。

우리들은 民主陣營의 힘이 强力하게되며 共產主義의 勢力이 약해지고 있다는것을 믿고 있다

(二面八段에계속)

義

金龍周

日 當하고있는 生存競爭도 있다 그러므로 人間社會의 千態萬像이 모두 競爭으로 始作되고 勝敗로 마치는것이 그 實情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競爭에 勝利를 얻기위한 人間의 努力은 이것이 人類社會의 發展을 가져오는것으로 人間의 가장 尊貴한 事蹟이라 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 이勝負競爭에 그手段方法과 度數를 越脫하면 여기에 많은 죄악이 發生하는것이다 마치 病을 治療하는 醫藥이 잘못쓰거나 度數를 넘으면 死毒이 되는것같은것이다 故로 勝負競爭에 公道를 定하여 이것을 遵守하는것이 人間社會의 正義와 平和를 지키고 發展을 도모하는 第一重要한 일이다。

우리가 運動競技에서 지켜야 할「룰」을 違反하면 反則으로 失格을 當하는것으로 運動競技에는 勝負보다도 運動精神의發揚에 重要意義가 있는것이다 이것이 運動競技에만 限하는것이 아니라 於千萬事에 道義的公道가 必要하다 善과 正義에 立脚하여 敗하는것이 惡과 不義로서 勝하는것에 참으로 勝하는것이다。

解放後 우리社會의 秩序가 齊亂하여짐에 따라 中傷謀略이 盛行하여 모든 部門에 正當한 努力競爭보다도 中傷謀略과 俠雜으로 勝利를 得할려는 氣風이 漫延되여 추악한 社會相이 날로 심하여 가고있다 내利慾과 出世를 위하여는 相對를 謀陷中傷하여 너머 뜨리고 그 자리를 빼았을랴는것이 近來盛行하는 비열하고 악한 경쟁이다 이것을 徒步競走에 앞선 사람은 처서 너머뜨리고 自身이 앞서는것같은 것이다 故로 우리人間社會에는 모든 일에 正義를 根本으로 세워두고 行動하여야 할것이다 正義에 立脚한 競爭은 文化와 發展을 가져오고 不義不正한 競爭은 罪惡을 가져온다 특히 우리國家社會에서 注力하여야 할것은 政治鬪爭에 대한 淨化運動이다 今日의 民主政治는 그目的이 政客自身의 利慾에 있는것이 아니고 國家國民에있는 것임으로 政客은 政綱政策이 對로되는 相對方에 對하여도 尊敬保護하여야 할것이다 政治競爭에 運動競技에서 보는것같은「훼야플레ー」가 必要한것이다。萬物의 영장인 우리人類社會는 目前의 暴力으로써 勝敗를 定하여서는 안될것이다 우리는 目前에 지고 永世에 勝하는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옛날 유데 헤롯王과 執權者들은 不義의 暴力을 빌어 예수그리스도에게 十字架極刑의 罪를 씨웠다 이것은 目前의 勝敗로보면 그 執權者들이 예수그리스도에게 勝한것이다 그러나 敗한 그리스도는 人類의 사랑을 위하여 正義의 피를 흘린것이고 勝者 유데執權者들은 自身의 獨裁慾과 暴力에 依한 惡으로、근원된 勝利이기때문에 그 勝敗가 正反對로 예수그리스도는 人類를 爲한 永世의 勝利者가되고 유데執權者들은 千秋의 罪人이 된것이다 高麗末 鄭포隱先生은 그 꺾이지 않는 忠誠으로 결국 暗殺을 당하고 말었으니 그 이상 더 없는 참패를 당한것이다 그러나 善竹橋의 붉은 핏줄기는 先生의 忠義를 永世에 빛내여 後世의 國民으로 하여곰 忠誠의 구鑑이 되었다 그러면 自身이 野慾으로 포隱을 暗殺한 定宗과 正義에 죽은 포隱을 누가 勝利者가 되었을것인가 故로 暴力과 惡計의 勝利는 勝利가 아니라 敗北인것을 알수있는것이다 共產主義의 暴力獨裁의 罪惡과 民主主義의 自由協助의 眞價도 이로써 알수있는것이다。

望臺聲

묵은해라、새해라 하지마는 해는 언제나 오늘이나 마찬가지 해가 떠오르고 人事에도 세상에도 이렇다 할 변동이 없건마는 사람이 이름을 짓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한 습관에 지내지못하는것이 아닌가 이 땅 사람들은 더구나 야단이다 우리야 공연히 저들을 따라 정신없이 야단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정신을 차리자

○지난 해는 불만한 휴전이되고 환도를 하게된것도 고마운 일이지마만 아이젠하워대통령이 원자력 공동관리와 이를 평화수단에 이용할것을 국련에 제안한것은 기록적인 사건이오 쏘련서 수락한것도 다행한 일이다

○비노니、새해는 무서운 三차전쟁이 일어날 기운이 걷어지고 그리고 조국이 할수있으면 평화리에 통일이 되기를、그러기위하여「세계민주진영의 강력한 단결」이 있기를、

○비노니 새해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재일교포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이 축원한다

亞細亞訪問途中來日한 美國NCC會長마틴博士歡迎會

미국에 三千五百萬신도를 가진 NCC(기독교협의회) 회장 윌리암·마틴 박사는 지난(十二月) 十八日오후 영시반에 하네다 착 판·아메리칸편으로 랍떠스·투디 박사와 동반하여 당지에 도착하였는데 二十一일에는 한국으로 향하였고 당지에 도착한 다음날인 十九일 오후에는 긴자(銀座) 교문관 크리스챤쎈터에서 열린 환영회에 출석하였는데 동 환영회에는 일본NCC총회의장 오자끼(小崎)씨 총간사 에비자와(海老澤)씨를 비롯하여 카가와씨 전 청산학원장 아베(阿部)씨 日本YMCA동맹 총주사 사이도(齊藤)씨 국제기독교대학 총장 유아사(湯淺)씨등 일본기독교、각단체의 지도자와 선교사 약 사십명이 출석하여 「오자끼」씨의 환영인사와 마박사의 멧세지가 있었고 일본교회의 교세와 일미관계에 대한 간담이 있었는데 동박사는 요지다음과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미국에서도 교회의 내외에서 공산주의에 대하여 문제를 삼아 말하는이도 많이 있지마는 우리는 아직 전도사업에 바빠서 거기에 관심을 가질 새가 없다 에반스톤에서 열리는 세계교회협의회에 관하여서는 이미 질물서를 각처에 보냈으니 그 회답을 기다리는중이요 일본과 아시아 각국에 있는 교회의 많은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關西地方 新年查經會詳報

기보、이번 재일대한기독교회 관서지방회에서는 신년 사경회를 총회 교육국의 후원으로 一月四日오전九時로 七日밤까지(四日간) 개최하게 되었는데 장소는 경도교회와 대판교회 두 곳으로 나누어 모이고 강사와 과정과 반조직 집회 시간등은 다음과 같으며 많은 회원이 출석하여 원만한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한다。

一、講師 外部講師

金우헌、吳允台、打要翰 各牧師(金·吳兩牧師는 交대로 수고하심)

內部講師

大阪地區

李宗憲、崔正洙、金元治 南保羅、朴斗星、

京都地區

丁仁壽、田永福、金경찬 打要翰

二、查經課目

大阪地區

아모스、다니엘、마태、마가、갈나디아、골노새 총회헌법、음악

京都地區

출애급、레위、요한、고후、빌립、묵시록、성신론、음악、

三、班組織、諸職班、洗禮班、學習班(求道者)

四、集會予定(每日)

早天祈禱會、五時半-六時半

敬건會、九時-九時廿分

査 經、九時卅分-十二時半

特別講義、十四時-十六時

밤集會、十八時-二十時半

五、入會金 每名 五十圓式

六、入會願書 一月三日主日 各教會에서 教役者가 收集하여 四日아침開會前、事務責任者에게 提出할것。

注意事項

一、持參品、寢具、쌀十食分 二升、반찬

△모든食事는 自취制로함

△宿所와燃料等은 주선하여 드림。

釜山埠頭에新設된教會

金준경씨 誠意로

작년 가을에 부산항구 부두에는 전에 없던 새 교회가 하나 생겼다。

이 교회가 서게 된 내력을 들어보면 눈물 겨운 이야기가 있다 이 부두교회는 연약한 젊은 부인 김준경씨(三十세)의 믿음과 성력으로 서게 되었는데 김씨는 본시 서울시외에서 국민학교교원으로 그 남편과 같이 어린이 교육에 성심 노력하다가 四년전 六二五사변을 당하여 남편과 친정부친까지 공산군에게 납치 당해가고 피난도 못하고 어린아를을 더리고 공군치하에서 섯달동안 지긋지긋한 고생을 하다가 국군과 유엔군이 들어 온 뒤에도 부친과 남편의 소식은 모르고 자기는 미군부대에서

亞細亞Y운동은 아시아 사람의 힘으로

第三回亞細亞Y指導者協議會에 出席한 崔鍾壽氏談

(사진은 崔鍾壽氏)

기보、이번에 필립빈 바귀오에서 모인 제 삼회 아시아Y지도자 협의회에 한국대표로 출석했던 부산YMCA간사 최종수씨는 귀국하는 길에 지난 十二月十六日에 당지에 도착하여 우리YMCA를 방문하고 약 이주일동안 머물고 있는동안 지난十八일 정오 와이스멘쓰클럽에서 요지다음과 같은 담화를 하였다。

대회는 아시아 각지에서 모인 十三개국 대표와 三개국 옵써ー버와 합十六개국에서 참석한 六十여명 모였다。

이번 협의회에 전체회의에서 토의되고 결정된것만 대강 말씀하면、그동안의 YMCA운동은 二중추가 미국과 구라파에 치우친 경향이 있으니 앞으로는 강력한 아세아지구 동맹을 만들어가지고 아시아의 Y운동은 아시아 사람끼리 힘있게 해나가자는것이 이번 모임의 일관한 과제이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서 (一) 아시아지구YMCA동맹을 결정할것(二) 아시아지구의 Y운동을 위하여 중심지가 될만한 곳에 완전한 지도자 양성기관을(미국의 쪼지 윌리암스 Y지도자대학만한것을) 설치하기로 하는 두가지 중요한 안건이 결정되었고 다음으로 아시아 신흥국가들을 도웁기 위하여 기본교육과 기술원조에 노력하기로하고 다음에 Y운동과 기독교를 대중에 이해시키고 선전할만한 문헌출판에 주력할것을 결의하였다 문헌출판사업은 아시아에서는 인도와 일본이 가장 발달되었고 우리 한국이 가장 빈약하였다。

이번에는 앞으로는 미국의 도움을 받지않고 아시아의 Y운동은 아시아사람의 힘으로 해가자는 기세가 높았는데 여기에는 확실히 Y운동도 국민의식이 본위가 되고 국가의식의 터위에서 해가자는 생각、다시 말하면 국가의식의 터위에서 국민의식에 적합하도록 Y운동을 취진하자는것이다。

마지막으로 마닐라에서 Y회관에서 묵으면서 몇날 지났는데 약 만평되는 캠퍼스안에 약 六千명 수용할 강당과 훌륭한 호텔과 각가지 시설이 완비해 있는데 그네들은 대개 체육과 오락에 많이 힘쓰는 모양이었다 약二千만 되는 인구에 구교가 팔할이 되는고로 Y운동

[illegible]례를 하고 [illegible]활을 해오다가 미군부대가 [illegible]함을 따라 미군을 따라서 어린것을 더리고 일본에 건너와。

일본에 온[illegible] 자기를 돌보아주던 미군은 본국으로 가고 요꼬하마 등지로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고생하는중에도 그는 본시 불교를 숭상하는 가정에 자라났기때문에 어떤 불교당에 다니면서 새벽마다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납치된 부친과 남편을 위하여 정성으로 기도를 하였다 그러다 김부인은 마음에 도므지 만족을 얻지못하고 조국의 일을 생각하고 외로운 자기 몸을 돌아보아서 마음에 심한 번민과 고통중에 헤메고 지내다가 마침 당지에 있는 부인선교사로 본국 대구등지에 三十여년 선교사 사업과 교육사업에 헌신하다가 지금 요꼬하마와 요꼬스까등지에서 우리 동포의 가정을 심방하면서 열심 전도하고 있는 빼그만 선생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성경을 배우게 되므로 비로소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마음에 기쁨과 안심을 얻어서 열심으로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배우고 한편 자기의 깨달은것을 가지고 간증하였다。

그리다가 지난 봄에 여행권이 없고 등록이 없다고해서 강제송환이 되어 부산으로 가게되었다 김씨의 생각에는 공산주의자가 약한 일을 하는것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까닭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참안심을 얻지못하는것도 마음에 죄가 있고 예수를 모르는 까닭이니 전도를 힘써서 다 예수를 믿게 하여야 되겠다고 깊이 깨달은 그는 길에 다니면서 만나는대로 전도하다가 부산 부두에서 상자하는 부인들과 불상한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다가 차차 사람이 모여서 부둣가 해변 바위위에서나 길바닥에서 햇볕에 쪼이면서 예배를 보고 주일학교를 하였다 그리고 눈물로 예배당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는것을 지나가던 교인들이 보고 협력을 하고 미군 종군목사가 지나다가 보고 약간의 건축비를 보조하고 김씨 자신이 성심것 얻은것을 합하여 목조빠락으로 지은것이 요새 부산에 새로 생긴 부두교회다 요새는 차차 부산에서 부두교회와 김씨를 알게되고 장년반 유엔반 합하여 백여명이 모이게 되었다。

이 어려울것 같으나 그런 관계는 없고 소수의 신교와 협력해서 잘 해나가고있다 더운 지대인고로 명상하거나 사색할 힘은 없고 그때그때 인생을 즐기는것 뿐인것을 보았다。

그들은 문화와 전통이 없기 때문에 그 생활이 미국화하고 근대화하여 모든것이 금전본위요 상업적이오 쾌락주의로 흐르고 국민적 혹은 개성으로서 자각이 없는것을 보았다 이번에 내가 느낀것은 앞으로 우리도 Y운동을 통하여 국제무대에 진출하여야 될것과 그리하려면 내 나라의 실력、곧 국력을 길러가여야 할것이오 우리 문화와 전통을 살리고 보전하여야 되겠다는것이다。

隨感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한현상

새로히 또 한번 기쁜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게 되니 감계가 깊고 새로워 짐을 금할 수 없읍니다、지난번 사랑의 半면을 일게된 후로 생각하게 된것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秋衡선생! 내가 소위 신앙생활에 들어온지 거의 四十년만에 비로소 느끼게 된것은 부활이 없는 신앙처럼 빈약한 신앙생활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부활을 믿고 부활의 진리가 온전히 내것이 될때에 비로소「십자가의 길이 광명하게」、두루비치는 희망과 생명의 길이며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에서 나를 위하여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구원의 복음이라는것을 믿게됩니다 사랑하는 이와 비록 유명(幽明)이 서로 격해서 범인의 번뇌가 크고도 아프나 오히려 희망속에 내세를 바라보며 내 길을 거러가렵니다。

사도바울께서 고린도前書十五章을 쓰신것은 一九五三년 성탄과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하는 일생을 위하여 주신선물인줄 생각하여 새로히 감격과 새 출발을 결심하면서 히브리四장十六절을 읽으며 주님의 넘치게 주시는 은혜속에 감격하였나이다。(五三 一二〇)

釜山火災罹民에게 보내는 東京敎會救濟品發送

사진은 부산 부두교회

지난 十一月二十七日 부산을 엄습한 큰 불로 이재민 二만여명이 추위에 떨고 있다가는 소식을 들은 동경교회에서는 그동안 직원과 부인회원들이 총출동하여 교인과 동포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구제금품을 모집하던중에 교우들과 동포의 가정에서는 서로 다토아 현금과 물건을 내므로 상당한 액수의 현금과 의류가 수집되어 동교회 직원들은 큰 고리짝 七개에 짐을 꾸려가지고 마침 요꼬스카에 와서 정박하고 있는 우리 해군 함정七〇一함 종군목사 이언동 대위의 알선으로 지난 十二月十七日출항하는 동六二함에 실어서 부산으로 보내게 되었다 동 구제품은 부산 화재 이재민 구제대책위원장인 중앙교회 목사 노진헌(盧震鉉)씨 에게 보내기로 되였는데 동경교회에서 전기 이언동 종군목사와 六二함 함장에의 호의를 감사한다고 한다。

(一面九段에서 계속)

결국 이런 事實이 眞實이란것은 眞理는 誤謬보다 强力한 까닭이며 終末은 眞理가 勝利할수가 있다는것이다 그러나 이 終末은 未來에 있어 상당한 時日이 걸릴것이며 人類는 아니 이 終末이 오기前에 크나큰 試鍊을 經過하게 될지도 모른다는것이다。

新年을 마지하면서 우리가 希望할수있는 最善의 길이란 完全한 武器를 가춘 休戰이다 그리하야 우리韓國軍의 數도 一九五〇年六月에 保有하였든數보다도 월신 많이 확장하며 만일 共産主義者들이 侵略을 도발할때에는 우리가 以前보다도 더 큰 努力과 勇氣를 가지고 對戰할수있게 하여야한다는것이다。

또 하나의 希望은 戰亂에 파괴된 韓國의 再建과 復興을 迅速히 하여야한다는것이다 우리들은 國聯및 美國이 人力과 資金을 供給할것을 疑心치않고 있으며 韓國民의 福利와 幸福 保健設備 敎育및 繁榮이 近數年間 戰亂에 시달린國民에게 있을것을 믿는바이다。

如何間 基督敎人들은 新年을 마지하여 歡喜와 平和를 希望하며 기도하지않으면 안될것이다 참다운 基督敎人은 決코 悲觀主義者가 아니다 이와 反對로 참다운 基督敎人이란 예수님의 敎訓을 지키며 光明과 自己自身으로 勇氣를 가질수 있을것이다。基督敎人은 항상 希望에 살며 때로는 희생까지도 즐겁게 받아드릴수가 있는것이며 보다더 좋은時代를 建設하기에 努力하고 있는것이다 地上에 天國을 主님이 再臨할 그때를 期待하면서 努力하고 있는것이다。

世界어느나라의 敎會보다도 韓國敎會가 當面하고있는 조戰的인, 狀態에있는 敎會란 有史以來없었다 물론 日本에있는 韓國敎會도 마찬가지다 우리敎會의 各成員들은 더한층 공헌의 精神을 발휘하여 다가오는 新年에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主님앞에 인도하며 實踐的으로 主님의 天國을 만들기에 努力하자!

人間의 個性의 尊嚴性을 尊重하며 自由의 傳統을 가지고 있는 푸로테스탄트敎會이야말로 共産主義에 대항할수있는 世界最大의 길이다 一九五四年의 新年을 마지하면서 이 最大의 길을 더한층 强力하게하며 확장하도록 서로 努力하자!

(四面五段에서부터 계속)

基督敎人이 되었느냐고 그 까닭을 물으니 그가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비록 肉體는 없어지더라도 영혼은 죽지않을 것이라는 말을 學校기도회때에 들은 일이있다 내가 投獄되여 지독한 고문을 당하였을때 내 생명은 이것으로써 마지막된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마지막 기도를 한 일도 있었다 마침 그때에 宣敎師가 聖經을 들여보내주었다 그러나 나는 심한 고문으로 손을 펼수없기때문에 같이 獄에있던이들、이 聖經의 페이지를 들치주므로 그聖書를 읽을수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이 聖經을 읽고있는 것이다 오늘날 나는 確信하건데 모든 일이 主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을 입은 이에게는 모든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나니라」하고 말하고있다。(로마八28)

그는 監獄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마침내 死刑을 받게되고 投獄生活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는 監獄에 같이있는 同志들을 모아놓고서 班을 組織하여 經濟學 英語 및 聖經을 가르첬다 그리고 이때에 獄中에서 그는「獨立精神」이라는 책을 著述하였다。

苦難과試練의 해

一九五三年을 回顧하여

지난 해 一九五三년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 글자 그대로 고난과 시련의 해였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고민의 해였다。냉전(冷戰)八년의 가장 큰 희생자인 한국에도 일시적으로도 휴전이 성립된 것도 이 해이다。그러나 그것은 미、소 두 진영의 냉전의 완전한 해결책은 못되었다。

세기의 수레바퀴는 가지가지의 파동과 고난을 던지고 一九五四년으로 굴러간다。우리의、아니 세계 인류의 희망도 귀결도 다 오는 새해에 맡겨졌다

지난 해에 국제국내에 있어서 큰 파동을 던져준 사실、그리고 그 때마다 보도계(報道界)를 피랍힌 역사의 한 페지를 뒤집어 보기로 하자。

가장 큰 뉴쓰였던 것 열 가지를 꼽는다면、첫째로 손꼽을 것은「한국전란의 휴전성립」일 것이며、다음에는「스탈린의 죽음」、「베리야 숙청」、「東獨의 폭동」、「소련의 水소폭탄 실험실」、「아이크의 원자력 管理제안」、등 거지반 담 너머 저쪽에서 던져 준 파동이었으며、끝으로는「영국황제 대관식」、「이란의 정변」、「일본의 홍수」、「부산의 큰 불」같은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

「통일 없는 휴전 절대반대」를 부르짖는 부락카드의 시위 血書의 반대도 무릅쓰고、또 이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휴전은 성립되었다。이것은 한국전란의 해결은 아니고 도리어 한미 협정과、중공 북한 군사동맹으로 서로 새로운 태세를 갖추어 대비하게 되었으며、정치회의의 성과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스탈린이 죽은 뒤「마」정권의 벗장을 몰라 퍽도 궁금하게 하더니、아닌게 아니라 東獨일에서의 노동자를 위시로한 대규모의 폭동、베리야의 숙청으로、나올 것은 나오고 말았다。

또 지난 해는 소위 원자力 외교 八년의 총결산의 해였다 마렌코프의 소련水소폭탄실험 성명은 큰 센세이슌을 일으켰다。아이크의 관리안의 제안은 외교、군사、국방의 새로운 전기를 가져올 것인가?

영국 황제 대관식、이란의 정변、일본의 洪水、이밖에도 셀수 없는 크고 작은 역사의 발자취、그 중에도 부산의 화재는 지난 해 최후의 설상가상의 채찍이었던가? (장)

카나다通信 (2)

趙淇善

목사님 健康을 들고 福音戰線에서 싸우시는 牧師님 요새도 건강하십니가 母國에 계신 師母任 爲始하야 宅內가 無故하신 소식도 들으시는지요 저는 愛禱하여주신 덕택으로 學生生活을 繼續하고 있읍니다 昨日(六日)主日에 처음 英語說敎를 했읍니다 一二〇〇名쯤 모이는 會堂에 大會衆을 앞에 놓고 떨어마어마했아오나 하나님의 祝福하심으로 잘 해서 많은 感動을 줄수있었읍니다 說敎內容은 韓國動亂中 殉敎하신 牧師님들 이야기와 신앙의 간증이 主였었고 題目은「銀과 金은 내게없다」使三〇一—十一 였었읍니다 예배중 찬양隊員을 爲始해 大박수를 해주었아오며 其他 歡迎받은 이야기는 너무 자세히 쓰면 내 자랑같고 榮光을 내가 取하게되니 牧師님 상상에맡깁니다。만토리올 스타(여기第一큰 新聞)를 爲始해서 各新聞에 報道되었읍니다 제 經歷과 說敎와 其他자세히 길게 報道되었읍니다 여기對해서는 이만큼만 쓰겠읍니다。

一九五三年도 이제 몇날 남지않았읍니다 歲暮、新年이 닥치오니 旅愁에 잠기어 故國생각과 어린것들 생각 敎會생각 간절합니다 外國留學은 獨身時節에 할것이로군요 二十臺靑年들 따라가기도 어렵거니와 머리가 복잡해 공부하기 힘들어 죽겠읍니다 日本消息전해 주십시오 金우현목사님 平安하십니까 各狀便紙올려야 될줄 알면서도 사실 便紙쓸 사이도 없읍니다 밤 보통一時까지는 공부하지 않으면 따라갈수가 있어야 말이지요 하여튼 學校에서나 敎會에서 큰 사랑받고 있읍니다 부족한 종爲하여 기도해주심을 바랍니다 金牧師님 朴兄 최형께 문안합니다。

十二月七日 趙白

밤 늦도록 공부하다가 느껴지는대로 되지않는 詩라고 지어보았는데 목사님 보셔서 신문에 空間이 있으면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꽃 피여 봄인가 하면 어느듯
나무잎 저 가을되네
유수같은 세월 붙잡을수 없어
라 잘도 지나가니

그리스도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가?

마가복음10:45

尹河英牧師

나는 본 신문 전호에 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세상 사람을 섬기려고 오신 데 대하여 말씀하였읍니다。과연 그가 세상에 계신 동안에 수다한 사람들이 그에게 섬김을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기후 그의 모본을 받고 그의 명령을 받들어 이 세상 전체가 남을 섬길 줄 알게 되었으므로、지금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다른 개인과 사회 단체의 도움을 받아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며 앞길을 개척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그러니 그리스도의 탄강은 인류에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탄강인지요!

그러나 그의 탄강은 봉사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그 이상 자기 몸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오늘은 이 것에 대하여 말씀해 보겠읍니다。

그때에 그가 계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代贖物)로、주려 함이니라" 고 하셨읍니다。우리 한국 신약은 신구역에 다「또」자를 번역하지 않은 것이 큰 유감입니다。이 귀절의 원문을 보면 "섬기려하고……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의 두 말 사이에「및、또、그리고」라는 뜻이 있는「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읍니다。그러므로 이 것을 다시 말하면、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하나는 세상 사람을 섬기려 하심이요、또 하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 하심입니다。

이 본문에 쓴 대속물이란 말이 매우 중요한데、이 말은 원문에「루트론」이란 말로서 그 뜻은 몸값(身價)、혹은 석방 대금(釋放代金)입니다。이 것을 비사로 말하면 뉘가 어떤 사람을 인질(人質)로 억류해 놓고、그의 몸 대(代)로 금전을 요구하므로、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요구하는 돈을 갚아 주고、인질로 된 그 사람을 찾아 오는 것과 같습니다。그러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에게 사로잡혀서 억류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의 몸값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찾아 내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게 사로잡혀 억류되어 있읍니까?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죄에게 포로가 되어 그 아래 머물러 있읍니다。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선을 행하는 자는 없느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였읍니다。어떤 이가 말하기를 "이렇게도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고、다 죄 아래 있어서 죄의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까?" 고 이 말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읍니다。그러나 이는 과연 진실하고 확실한 말씀입니다。이 세상에 자기는 죄가 없고 모든 것에 잘하는 줄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그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실상은 너무 죄악에 묻히어 살기 때문에 양심이 무디어져서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이 점에 대하여 성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 보십시다。그는 말씀하기를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도리어 뮈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이 사망의 몸에서 뉘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였읍니다。이 세상 사람 가운데 누구나 참되게 살고자 힘쓰는 사람은 다 자기의 경험하는 바로써 이 말씀을 확실히 인정할 것입니다。이 세상에는 참으로 사람으로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이와 같이 죄에게 사로잡힙니까? 이

나 언제 주위해 일하고 영접
할 준비 할고
색동 저고리에 남바우 쓰고 세
배다니든 시절어제같것만
어느듯 얼골에 주렴살 자피여
내청춘 벌서다 지나가려네
지난 날 다시 찾을수 없단
말인가
내 청촌 다시 찾어볼 길 영
없단 말인가

내 다시 찾어 고이고이 주앞
에 바처보렸만
영영 찾어 볼길 없단 말인가
젊은 피 젊은 몸 고이 바치
주위해 힘껏 일못한것 한스러
워라
오 주 다시오서 잔치 베풀고
성도 부르실때
나 무얼 들고 나아가 주 영
접하리

크리스마쓰 童話 (2)

백작 따님이 루비가 된 이야기

천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루비를 가지고 밤 하늘 공중으로 올라가서 하늘 제일 높은 곳에서 땅위에 떨어뜨렸다。

×

루비는 쓸쓸한 바닷가에 떨어졌다 그리하여 모래 산밑에서 아침 해에 반자반자 빛나고 있었다 그리자 마침 누더기 옷을 입은 어、의 딸아이가 지내가다가 그것을 주었다 백작·따님과 나이가 비슷한 이 처녀는 맑은 눈으로 한참이나 루비를 들여다 보고 있었다 물론 그 속에 예쁜 나타리아가 있는줄은 모르고 그냥 그것을 전부터 늘 신세를 지고있는 수도원으로 가지고 갔다。

가난한 처녀가 바친것이다。 더 한층 광채가 나는 큰 보석 루비는 곧 제단 촉대에 끼웠다。

이때에 불상한 나타리아는 어부의 딸 아이가 자기의 오직 하나밖에 없는 보물을 애낌없이 바치는것을 보고 자기가 욕심많고 인색한것을 무척 부끄럽게 생각하였다。

이리하여 나타니아는 혼자서 외롭게 크리스마스를 지내게 되었다 꼼작도 못하고 있어서 다만 남들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마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니우침과 외로움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은즉 루비는 흐려저서 제단 옆에 만들어 놓은 작은(주님 나신) 말 오양간이며 찬란하게 장식한 크리스마스추리도 보이지 아니하여 점점 더 외롭게 슬프게 되었다。

×

그런지 백년이 지났다 그리하여 아마 금년 크리스마스가 꼭 백년째 되는 해인 모양이었다 여러분이 만일 어느 멀고 먼 나라의 어떤 수도원에서 제단에 있던 루비가 없어졌다고 하는 소문을 들으면 그것이야말로 용심쟁이 나타리아가 겨우 용사함을 받아서 붉은 안개와 같이 하늘에 올라간것이 분명한것이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도 겨우 끝이 난것이다。

香氣

천국 가는 길

태평양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서 기선이 파선을 당하게 되었다 선원이 총출동하여 힘을 다하여 일을 하였으나 종내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는 점점 까라앉게 되었다 폭풍때문에 보-트를 내릴수도 없었다。

그래서 이 배를 탔던 사람들은 전부 배와같이 물속에 빠저 죽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에 훌륭한 신앙을 가진 선장은 조곰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선원과 선객을 다 모아놓고 말하기를、

「이제 이 이상 어찌할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기서도 하늘나라에는 갈수있읍니다。」

그리하여 여러 사람은 일제히 찬송을 부르면서 안심중에 천국길을 떠났다고 한다。

요한十四 1-4 디모데후四 18

빌립보三 20

는 다름 아니라、 죄는 사람의 육신이 연약함을 기회로 하여 육신을 기계로 써서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로마서 8장 첫 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 끝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제도가 이루워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하셨읍니다。 이 말씀은 신성한 율법이라도、 사람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못하나、 하나님께서 딴 방법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의 의를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쓰나、 육신이 연약함을 인하여 죄를 짓게 되고、 또 그 죄값으로 사망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형벌을 당하여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마땅하지마는、 온 세상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죄를 범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인자하신 눈으로 이 불쌍하고도 참혹한 정경을 보실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바로 이것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탄강이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위에 설명함과 같이 세상 사람들의 몸값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탄강하신 것입니다。 죄 짓는 사람으로서는 죄인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탄강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이 이머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謹☆賀☆新☆年

寫眞材料富豐
高級カメラ賣買
DP信用仕上
日曜堂寫眞機店
東京都北區志茂町一ノ二四二
電(90)四二八八(呼)

平壤商店
東京都文京區小石川柳町停留所前
電話(85)〇一八七、四八七九

한글교실 (제 33시간)

張 曉

(6) 받침의 소리값(音價)

닿소리(子音)는 언제나 홀소리(母音)를 짝하여서만 난다는 것은 먼저도 말하였습니다. 닿소리가 임자씨(體言)나 풀이씨(用言)의 줄기(語幹)의 끝소리(終聲) 곧, 받침으로 쓰일 때는 그 말에 딸린 토나 씨끝(語尾)에 이어날(接音될) 때가 아니면 제 소리값이 다 드러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우리 글자의 닿소리가 저 로마 글자의 닿소리와 다른 점일 것입니다. 곧,

죽(粥), 부엌(廚)

밖(外), 몫 (分), 흙(土)

따위의 받침으로 된 "ㄱ, ㅋ, ㄲ, ㄳ, ㄺ" 은, 죽이(주기) 부엌에(부어케) 밖으로(바끄로) 몫을(목슬) 흙의(흘긔)와 같이 이어날 때에 비로소 그 소리값이 다 드러나는 것이요

부엌도, 밖도, 몫도, 흙도 와 같이 그 아래에 닿소리가 계속되거나,

부엌안(부억안 廚內)

흙일 (흑일 土工)

과 같이 홀소리라도 그 말에 딸린 토나 씨끝이 아니고 딴 뜻을 가진 말이 합친 것이나, 딴 말 위에서는 제 소리값이 다 드러나지 아니합니다. 곧 "ㅋ, ㄲ, ㄳ, ㄺ" 은 소리값이 "ㄱ"과 같아 집니다. 재래에 (최 세진 이후) 받침을 "ㄱ, ㄴ, ㄹ, ㅁ, ㅂ, ㅅ, ㅇ" 일곱만으로 써 왔음도 그 동기와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에 이런 것을 다 보이겠읍니다.

(1) 이어나지 않는 ㅋ, ㄲ, ㄳ ㄺ의 소리값은 ㄱ과 같음.

웃녘도, 낚고(漁), 넋도 읽고

(2) 이어나지 않는 ㄵ, (ㄶ)의 소리값은 ㄴ과 같음.

앉는(안는 坐) 않는(안는)

(3) 이어나지 않는 ㅅ, ㅈ, ㅊ ㅌ, ㅆ의 소리값은 ㄷ과 같음.

짓고(짇고作) 낮고(낟고低)

쫓고(쫃고追) 같고(갇고同)

있고(읻고有)

(4) 이어나지 않는 ㄼ, ㄽ, ㄾ, (ㅀ)의 소리값은 ㄹㄹ과 같음.

여덟도(여덜도八), 돐도(돌도)

핥는(할는), 끓는(끌는 沸)

(5) 이어나지 않는 ㄻ 의 소리값은 ㅁ 과 같음

젊고(점고 少)

(6) 이어나지 않는 ㅍ, ㄼ, ㄿ ㅄ의 소리값은 "ㅂ" 과 같음

높다(놉다高) 밟고(밥고踏)

읊고(읍고吟) 없다(업다無)

위에도 보인 바와 같이 "ㄼ" 은 "넓(널)다, 밟(밥)다" 로 말에 따라 두 가지로 발음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재래에는 "ㄷ" 소리가 나는 것도 모두 "ㅅ" 으로 적어 왔는데, 그 중에 임자씨나 풀이씨로서 토나 씨끝에 이어나는 것은 그 이어나는 대로 "ㄷ" 으로 밝히려니와, 토나 씨끝이 붙지 아니하는 말 곧, 매김씨(冠形詞) 어찌씨(副詞) 앞가지(接頭辭)로서 "ㄷ" 받침 소리가 나는 것은 재래의 버릇을 따라 "ㅅ" 으로 적기로 규정되었읍니다. (통일안 제 6항)

뭇(사람), 옛(말), 첫(말), 헛(소문), 그릇(誤), 무릇(凡), 덧(저고리), 빗(나간다), 엇(셈) 엿(본다), 웃(어른), 핫(옷)

外國外交官이본 李承晩大統領

前駐소美大使 윌리암·써·불렛트氏

今年七月에 나는 韓國休戰危約最中에 서울을 訪問하게되었다。三十五年間 나의 旧友인 李承晩大統領이 共産側의 休戰에 對한 提案을 受諾하는데 참을수없는 분개를 느끼고있다는것을 直接 그에게 들었다。나는 그의 沈着하고 理智的이며 一단 決心하면 變함없는 良心의 사람임을 더욱 確信하게 되었다。그는 基督敎信仰者이며 共産主義者들과 싸우는데도 하나님에 對한 굳은 信仰을 가지고 行動하고있으며 또한 이것이야말로 그가 항상 생각하고있는 問題인것이다。 이와같이 세계가 混亂속에서 헤매일때 이地上에 善의 힘이 確實히 明白하지못할때는 惡의 힘이 激甚하게 發動하게 되며 强大지게 된다는것은 흔히 誤解될수있는 事實이다 李大統領이야말로 바로 이 말에 해당한이라고 하겠다 그를 한「완고한 老人」이라고만 보는 사람들은 바로 그의 全面的인 性格과 道德的勇氣에 대하여 無知하다는것을 말할뿐이다。

그는 일찌기 民族의 自由와 獨立精神을 自覺하여 獨立運動에 만進하는 한편 미순系(감리교) 培材中學校에서 英語工夫를 하였으며 그때에 그는 예수님의 敎訓을 듣게되었다。日本과 쏘련의 韓國에 대한 侵略的野心이 엿보여질때에 당시에·힘있게 일어났던 獨立協力會는 항상 外部의 侵略的野心에 저항하는데 全力을 다하였으며 나아가서는 腐敗한 君主政治의 革新에 努力하였다。君主政治革新을 理由로 當時 高宗은 獨立協會部員 十七名을 投獄식혔으나 總明한 李大統領만은 王家의 親戚關係로 特사를 받아 釋放되었고 政府의 參事로 任命하였는데 當年이 二十歲였다 李大統領은當時政府에 들어갔으나 그의 思想은 變함이 없었으며 드디어 政府에 대한 반대학생데모運動을 指導하였다가 再次 체포되었다 投獄當時 그는 二十二歲였으며 그의 生涯에 劃期的인 時代였다 그는 그 思想과 決心을 變化시켜려하여 六개月동안이나 每日 고문을 당하였다 그의 목과 손 발에 착고를 채우고 全身에 쇠사슬을 얽어매 놓고 쇠몽치로 때리는 고문을 當하였으며 때로는天井으로부터 몸을 붙·어 意識을 잃게까지 되었다 때로는 참대까지로 손톱사이에 찌를기까지 하였다 그는 다만 죽기만 하나님에게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러나 그의 肉體는 그의 精神으로 더브러 健全하게 지탕할수가 있었다 그의 父親은 그의 屍體를 가져가라는 寄別을 여러번 받았으나 결국 죽지않고 生存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고문은 그로하여금 예수·크리스도를 믿게하였으며 내가 그에게 어찌하여

(二面九段에계속)

詩 큰소리 말아라

美 舜

천하장군님이
하늘아래 하나뿐인 길을 세우곤
뚫야뚫야 간다
종종걸음이 달음질이 되고
마음이 으쓱 좋아
부리낳게 맹진한다
얼마만을 가다가
휘 돌아보니 온것이 없구나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서성되고 있잖냐
다들 가는 한길위에
목구멍을 섬기는 노상에서
어쨌사 이럴리가 있을가

허는 철로 체어지고
마치 바람빠진「타이야」다
슬슬 만지는 손으로
그리고 싹 웃어본다
아무도 보잖는 새
나도 도루래미 타불이었나보다!
우두머니 서있기가
얏겨운 일
숨긴 비밀은
가슴안에 앓고
거블거블 헤그를 걸을
나의 보행은 천천히 계속한다

一九五三·十二月

小說

새벽종

田蒙澤 作

(41)

새세계의 광명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한번 뒤를 힐끗 돌아보고는 무슨 말을 할듯말듯 하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자동차에 올라타고 그 뒤로 헌병이 뒤따라 타자 막 몰아 달라나니 마음 약하고 굼뜬 명애는 다만 태호가 타고 달려가는 차를 얼빠진 사람처럼 바라보다가 들어와서도 한참이나 말이없었다

「대체 웬 일이요 어떻게 된 셈이요 이야기나 좀 해주어요」

맥 없이 방바닥에 털석 앉는 명애는 오래 전부터 회사 일도 보고 자동차로 운전하고 집안 일도 보면서 한 식구처럼 지내는 봉수에게 이렇게 물었다。

「글세 나도 자센 몰라요 그래두 벌서 몇날전부터 회사에서 수근수근들 하시는것이 아모래도 무슨 일이 있나보다고 짐작은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봉수밖에 의논할 사람이 없어서 명애는 이렇게 말했으나 신통한 대답을 기대한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명애는 곧 동광동 회사로 내려가 보았으나 다 나가고 총무파장과 소사가 남아서 실신한 사람들 처럼 담배만 피우고 말없이 앉아있다 그래서 그 길로 명애는 택씨를 불러 타고 초량 민용구집을 찾아 가보았다。

용구의 부인을 만나니 그는 벌서 그날 아침에 잡혀갔다고 한다 그때에야 명애도 사건이 상당히 중대한줄을 짐작하였다 민이 있으면 태호의 뒷 의논도 하고 부탁을 하려고 갔는데 그도 잡혀갔으니 다시 말해볼 데가 없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완월동에 피난생활을 하고있는 한 목사를 찾았다。

명애는 정자부인만 있는데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잠시 앉아있는데 키 크고 인자한 한 목사가 지팡이를 들고 들어온다 한 목사는 명애를 본시부터 사랑하는 터이라 무척 반기면서 모처럼 찾아온 까닭을 물는다。

「윤선생이 헌병대에잡혀갔대요

말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앉아있는 명애대신 정자부인이 이렇게 일렀다。

「그래? 웬 일인고!」

한목사는 깜작 놀랜다。

「목사님 저도 몰르겠어요 어떻게하면 좋아요」

「글세……」

「목사님 저는 이런 일을 처음 당하니 앞이 막막하고 어떨줄을 모르겠어요」

「허 저렇게 착한 사람이 격정을 만났군 그러나 과히 걱정하지 말어 명애도 이런 때에 더 믿음을 굳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 이왕 당하는걸 어떻게 하나 윤선생도 수양을 좀 해야지 좋은 기회지 기회야 이렇게 말하면 안됐지만 감옥이나 유치장이 사람 만드는데야 좋은 수도원이지 그런데 입부러 들어갈려고 해도 못들어갈거 아니야 밤낮 바쁘고 골몰해서 성경 한장 몰 새가 없던 사람이 성경이나 좀 읽고 수양을 하고 나오면 사람이 된다는 말이야 나도 경험이 있지마는 성경공부하기 좋지 그러니까 내일 일즉 성경이나 한책 들여주고 그리고 담요나 무어 좀 먹을것도 들여주구 그리고 명애도 기도 많이 해」

이렇게 말을하고 한목사는 그 자리에 엎들여서 천천히 기도를 시작하여 울음 썪인 목소리로 태호를 위하여 기도해주었다 한 목사의 기도의 요지는 역시 태호가 지금까지 암흑한 세계에서 살았으니 이제부터 광명한 세계를 발견하여 새사람이 될것을 기구하는 것이었다。

명애는 한목사에게 감사한 인사를 하고 마음에 단단히 결심한바 있어서 안심한 발걸음으로 집에 와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잤다。

謹☆賀☆新☆年

金養坤
東京都中野區本町通四ノ三六
電話中野(38)五三〇九番

辛基泳
東京都世田谷區代田二ノ九九二
電話(32)一五四〇番

各種ゴム靴
高級皮革靴
都散賣
妙見靴店
主 崔永模
福岡市吉塚妙見町三
電話(3)三八九四番

研削砥石・研磨材料
青砥の石工用
營業品目 各種天然砥石・パルプ用丸砥
油砥石・切断砥石・鐵砂
高級金剛砂・
中共向砥石は神田砥石へ
東邦窯業砥石特約販賣店
神田砥石工業 株式會社
東京千代田區神田神保町二ノ二
電話(33)五〇一四番
振替一九四九二三番

洋服地・人絹織物・ビニール製品
雨具類・カバン・袋物・各輕帶品
雜貨
卸
輸出商 **金澤商店**
店主 金沢滿
住所 下關市伊崎町五三ノ八番地
電話(2)三七〇四番
取引銀行 帝國銀行下關支店